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7.16 (통권408호)



경제이슈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7.6%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경영노트

저성장 시대의 경쟁 전략

사회 트렌드

유럽 재정위기 그림자

저널 브리프

멀티플라이어 리더와 디미니셔 리더

洗心錄

즐겁게 살기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7.6%

- 중국 국가 통계국은 13일 2012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7.6%로 하락했음을 발표함
 - 경제성장률 추이 : 1분기 8.1%를 기록했으나 유럽채무위기에 따른 수출타격 등으로 2분기 7.6%로 하락(2009년 2분기에 경제성장률 7.9%를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8%이하로 하락)
 - 고정자산 투자 둔화 : 중국 고정자산 투자액이 15조 700억 위안으로 명목상으로는 작년 상반기 대비 20.4% 성장했으나, 전력과 도시가스를 제외한 기초설비 투자액은 약 2조 위안으로 4.4% 증가에 그침
 - 수출증가율 둔화 :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9,543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 대비 9.2% 증가에 그침
- 경제성장률이 8%이하를 기록하여 중국 당국은 금리인하 등의 통화정책과 투자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3.5%) 보다 0.5%p 낮은 3.0%로 수정하고, 2013년은 0.4%p 낮춘 3.8%로 하향 조정
 - 소비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대외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로 민간소비 증가율을 0.6%p 하향 조정한 2.2%로 전망
 - 투자 :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증가로 설비투자 증가율을 5.8%로 0.4%p 하향 조정, 건설투자는 수도권 주택 경기 부진으로 0.8%p 하향 조정한 1.6%로 전망
 - 대외거래 :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신흥시장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을 4.4%로 0.4%p 하향 조정
-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당분간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부진에 대응한 내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저성장시대의 성장 전략¹⁾

- 정보기술과 세계화의 동력을 통해 고성장을 거듭해온 세계경제는 점차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증가
 - 중국 등 신흥국이 값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고,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제 선순환 발생
 -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불황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장기간 저성장할 것이라는 비관론 대두
- 역사적으로 불황기 혹은 저성장 시기에 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음을 인식하고 위험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
 -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위기시에 혁신적이고 대담한 기업은 더욱 강해지고, 보수적이고 내부 지향적 기업은 쇠퇴하는 경우가 많음

<저성장 시대의 성장 전략>

	내 용
소비 패턴 변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 기업은 동질적인 서구 중산층의 확대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서구 중산층 증가는 사실상 중단됐고 신흥국의 중산층은 연간 소득이 5,000~25,000달러에 퍼져 있어서 소비 패턴이 매우 이질적 • 제품을 사서 소유하지 않고 공유 등의 방식으로 제품 사용권을 보장 받는 협업적 소비 등 완전히 달라진 소비 패턴을 이해해야 함
강한 정부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자유방임의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는 정부가 개입과 규제 강화는 물론 자원 할당이나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대대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기업들은 가치 창출을 넘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요구에 직면
오픈 이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절감이나 사업 집중 등에 혁신의 초점을 맞춰왔으나 앞으로는 여러 기업이 협업을 통해 혁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주력해야 함 • 많은 기업들이 정서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응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심각한 존망 위기에 처할 수 있음
빅 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데이터를 언제 분석해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지가 모든 CEO에게 도전 요소로 작용 • 데이터 분석 작업과 IT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빅 데이터 도입에 따른 이득은 비용을 능가함

1) 본 자료는 조선일보의 ‘컨설팅기업 모니터그룹 스티븐 제닝스 CEO가 말하는 저성장시대의 생존기법(2012.7.7)’과 ‘저성장 시대의 5가지 성장전략(2012.7.7)’을 요약정리함.

□ 유럽 재정위기 그림자²⁾

- (스페인 암시장 300% 팽창)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암시장이 활개를 치며 각종 범죄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EU와 회원국들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길어지며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에서 밀수입된 담배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
 - 스페인에서는 46억 갑이 넘는 담배가 불법 판매돼 전년보다 300%나 암시장이 커짐
 - 아일랜드는 전체 담배 판매업자 중 밀수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를 넘는다고 함
 - 유로존 이탈 1순위로 꼽히는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4%를 차지해 유로존 내에서 네 번째로 컸음. 이탈리아와 스페인·포르투갈 등도 지하경제 규모로 유로존 내 10위 안에 포함
 - 이처럼 유로존 암시장이 활개를 치면서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 국가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그리스섬 섬 매물 잇달아) 재정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그리스 섬 주인들이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자산가치 급락으로 관리조차 어려워지자 잇따라 섬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 함
 - 한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150만 유로 정도에서 20여 개의 섬들이 매물로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정위기 이전에 비해 2~3배 늘어나 수치라는 것임
 - 전세계 섬 거래 중개 사이트인 ‘프라이비트 아일랜드 온라인 (privateislandsonline.com)’에는 에게해에 위치한 300에이커 규모의 세인트토마스 섬을 1,200만 유로에, 280에이커 규모의 카르디오티사 섬을 650만 유로에 ‘염가 세일’ 중임
 - 그리스 토지 소유자들이 헐값에 토지 매각에 나서는 이유는 새로 부과하고 있는 부동산세와 은행의 채무상황 독촉 때문임

2) “유럽 재정위기 그림자”(서울경제, 2012.7.13)를 요약 정리.

□ 멀티플라이어 리더와 디미니셔 리더³⁾

- 리더는 크게 Multiplier(이하 M)와 Diminisher(이하 D)로 분류 가능
 - M형 리더는 D형 리더보다 직원 역량을 2배 정도 활용하며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곳에서는 그 격차가 약 3배로 확대됨
- ① (정의) D형 리더는 자신이 조직에서 가장 뛰어나길 원해 본인역량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축소시켜 버리는 마이너스형 리더임
 - M형 리더는 본인의 우수한 역량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의 지성과 능력을 증폭시키는 플러스형 리더임
- ② (인재 관리) D형 리더는 인재들을 수집하지만 그들의 능력을 단순 사용하는 데 그침
 - M형 리더는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도하지 않아도 인재들이 몰림
- ③ (의사 결정) D형 리더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리더가 스스로 결정을 내림
 - M형 리더는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림
- ④ (조직 분위기) D형 리더는 본인의 지식 수준을 과시하며 직원들을 통제하고 일방적·수직적 분위기를 조성
 - M형 리더는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⑤ (업무 권한) D형 리더는 직원들에게 업무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직접 챙김
 - M형 리더는 직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음
- ⑥ (직원과의 관계) D형 리더는 똑똑한 부하를 부담스러워하며, 부하들은 리더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만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음
 - M형 리더의 부하들은 리더를 배우려고 애쓰며 충성심을 보임

3) '부하직원 능력 증폭시키는 '멀티플라이어' 리더가 돼라'(한국경제, 2012.07.04) 참조

□ 즐겁게 살기

성공 지상주의는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타인을 경쟁자로 두고 모든 일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되듯이 감정의 물이 메마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삭막한 곳으로 변한다. 이종선의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하면...’ 이라고 말하며
성공을 ‘나중’으로 미룬다.
성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성공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면
‘성공은 무슨, 아직 멀었다’며 손사래 친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의 작은 성공들을 그때그때 자축하고 축하받으며
삶의 갈피마다, 일상의 고비고비마다 힘을 내야 한다.』

성공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것이 있다. 즐겁게 살기다. 나를 위주로 생각하다가 단지 타인을 더 배려한다고 즐거워하지는 않는다. 즐거워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즐거워지기 위한 방법은 그리 크지도 거창하기도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 멋있는 풍경, 나뭇잎 하나,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친한 친구의 웃음소리, 가뭄 뒤의 빗방울 소리 등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꾸준하게 즐거워지는 방법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점점 늘어만 갈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즐겁게 살기와 진정한 성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 앙리 베르그송(1859~1941) : 프랑스 철학자 -